

## “광주형 일자리, 타협과 상생의 척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강조한 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뒷줄 맨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4대그룹 총수 초청 2019 신년회서 밝혀  
광주시 새해 최우선 과제 추진 ... 조만간 협상 재개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열린 신년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현대차와 노조 등 광주형 일자리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올해 초 광주형 일

자리 협약 체결에 가속이 붙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특유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협약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 쟁점이 임금과 단체협약에 집중되면서 협약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미숙한 접근, 현대차의 버티기, 현대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노동계의 경직된 자세 등이 복합하게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장’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난 외부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설립된 한국의 경제발전의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새해에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년회 장소로 낙점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

자리 성공을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광주시도 분위기를 추스르고 새해 최우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6일 성사 문턱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이 무산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2018 광주사회지표’ 통계 조사 결과 시민들은 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22.9%)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22.8%)를 꼽았으며, 민선 7기 중점 추진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71.7%)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민선 7기 2년차 추진사업 1순위로 올려놓고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현대차 협상단장을 직접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7일 광주재판 앞두고 ... 전두환이 민주화의 아버지? ‘광주’를 모독한 이순자의 ‘망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0)씨가 전씨를 ‘민주화의 아버지’로 치켜세우고 광주 재판부에 불신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극우 보수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7일 광주에서 진행될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같다”며 “이런 양반이 법정에 가서 횡설수설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것을 보는 국민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며, 세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씨는 “불출석사유서도 썼는데 재판장이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광주 5·18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법사상 그동안 여러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바 있지만 서울 외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이 담당할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며 “광주는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씨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나라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 ‘고흥군’

전남도, 정부 공모사업 응모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로 고흥군을 선정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차 공모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전남 후보지에 고흥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고흥군과 나주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고흥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발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귀비와 도비, 군비 등 700여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증단지, 청년보육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고흥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적정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개발하고 시험해 보는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조성된다. 또 원예단지 기반 조성, 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이 연계사업 형태로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이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2차 공모에서는 유치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대상 후보지 30여ha가 농식품부 소유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다. 고흥군은 일부 개인 소유 유리온실 단지를 제외하고 22여ha의 간척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후보지가 농식품부 소유 간척지인데, 매입 예산도 확보하고 있어 유치를 위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내일 국가균형위서 ‘한전공대 설립 기본협약서’ 체결식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담보할 당사자간 협약이 오는 4일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체결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범정부 지원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지사, 전남도의회의장, 한전 사장 등이 각각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기본협약서는 한전공대의 조속한 개교 목표 달성 노력과 지원, 지자체의 입지선

정 절차·결과에 대한 수용, 향후 대학 인프라 조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지선정 경쟁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 해소와 대학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안 등도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한전 측은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한전공대 설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즉 강소(強小)대학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학생 수는 1000명+α(외국인 학생)로 정했다. 교수는 우리나라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해외 유수 대학의 학생·교수 비율(10명당 1명)을 감안해 100명으로 정했다. 부지 면적은 120만㎡ 규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 택시 기본요금 10일부터 3300원  
“서비스 개선부터” 시민 불만 폭주 ▶6면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시 당선작  
파랑새 시계탑·구름 ▶16·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분 좋은 꿈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가진 꿈도  
소망하던 다짐도  
2019년 새해에는  
모두 다 잘될 거예요

SAMSUNG